

전남도, 14조대 세계 직류산업 시장 선점 속도 낸다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협약 미래전력망 구축 공동연구 진행 실증·기술이전·지식공유 등 추진 'K-에너지밸리' 글로벌시장 진출

전남도가 오는 2029년 14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세계 직류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직류산업 전력기자재 개발 공동 연구에

나선다.

전남도와 전남지역연구기관, 공동연구 개발(R&D) 참여 기업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대표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독일 솔레스비히홀슈타인주를 방문, 16일(현지 시간) 프라운호퍼연구소와 미래 전력망 구축을 위한 직류산업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맺었다.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주 전력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다수의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 대표단은 이날 프라운호퍼연구소를 방문해 업무협약을 하고, 첨단 연구시설을 시찰했다.

협약은 프라운호퍼연구소, 킬 대학교 연구진과 전남 8개 기업이 2년간 직류 전력기자재 실증 및 기술이전, 지식 공유 등 직류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 대표단은 이어 독일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직류 전력기자재 기술개발 현황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전문가와 혁신 특구 운영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킬 대학은 △ATC(Active Thermal control)를 통한 전류제어기능 강화 △IOSP(Input-Series Output-Parallel) DC-DC컨버터(직류 전압을 변압하는 장치)의 결합 관리 △Mashed DC 그리드 분석 및 제어 △DC 그리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WT 및 PV) 통합 분석 등 4개 콘텐츠로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기업 간 1대1 기술 상담 매칭, 해외 공동 연구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 직류 전력기자재와 배전망 운용에 대한 전주기 실증을 통해 한국판 케이(K)-에너지밸리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

김영록 "호우 피해 조사·복구 신속 추진"

피해상황 점검회의 주재·현장방문 취약지역 예찰·안전 조치 강화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오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 협업부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피해 복구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응급 복구, 복구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조치 등을 당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평균 64.0mm의 비가 내렸으며, 지역에 따라 광양 중동 189.9mm, 신안 흥도 182.5mm, 진도의 신 169.0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침수 161건, 벼 침수 279ha, 지하 주차장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도로 토사유실 8개소 및 가로수 쓰러

짐 2개소 등 공공시설 피해도 발생했으나 현재 신속히 복구가 완료됐다.

전남도는 18일까지 20~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사전 대응 및 침수 유형별, 지역별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사전 위험요소 제거에 집중키로 했다.

김 지사는 "재해 대책은 아무리 과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지반이 약해진 급경사지, 축대,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예의 주시하고, 침수 취약지역 등 예찰을 강화하면서 재해대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면밀한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도로 복구 등 재해 복구 과정에서 접근 제한, 작업자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또 다른 피해가 없

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호우 피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목이버섯 등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를 입은 광양 진상면과 주택 및 마을회관 침수 피해를 입은 진도의신면 도복마을 피해 현장을 살피고 신속한 복구대책을 당부했다.

광양 목이버섯 시설하우스 피해 현장을 찾은 김 지사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가 커 안타깝다"며 "조속한 농가 피해복구와 함께 농배수로 등을 신속하게 정비해 애써 키운 농작물 침수 피해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자체 복구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양 진상면 청암리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농가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행안부, '섬 특성화 사업'에 여수 4개 섬 선정

금오도·하화도·개도·묘도 10년간 200억 발전기금 확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 사업'에 여수 금오도·하화도·개도·묘도, 4개 섬이 선정됨에 따라 10년간 최대 200억 원의 섬 발전기금을 마련하게 됐다 고 17일 밝혔다.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섬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섬의 재도약 발전을 마련 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 4개소를 포함해 경남과 제주 등 전국 10개소가 선정 됐다.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조성 하기 위해 10년간 4단계에 걸친 지원을

시행하며, 섬 주민이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하는 자율성을 보장해 섬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소독사업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대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섬마을,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전국 최다 선정의 결실로 나타났다"며 "이번 사업 선정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3~2024년 여수화태도 등 섬지역 특성화사업 6개소에 총 24억 원을 투입해 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市 '전문예술극장' 추진...

1면서 계속 윤상용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문공연장이 설립된다고 해서 성과가 반드시 따라오지는 않는다. '문화도시'라는 상징성에 맞게 전문 예술극장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공연장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경제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윤 교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식 개관한 지 8년여밖에 지나지 않

아 전문공연장 건립 명분이 부족하다 데다 전당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활성화 및 홍보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전문예술극장이 예술 창작 기능 없이 대관 업무를 주로 하는 기존 공연장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대구 오페라하우스도 상대적으로 축제·공연기간에만 활성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자리 창출 등의 이점은 있겠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고령 인구가 많아 오페라, 뮤지컬 등 MZ세대가 주 소비층인 문화산업은 살아남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7000억원가량을 들여 건립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도 수년째 부진한 성과를 거둔 이유는 프로그램·홍보·활성화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문공연장이 건립된다면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에 명운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 6. 7.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4. 8. 19.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7월 18일

케이씨테크윈 주식회사
전라남도 광양시 불로로 135, 1층 (중동) 청산인 조형철

한정승인공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24년 단 208 상속한정승인사 망 자 망 김선근 (63006-*****) 등특기준서 전라남도 광양시 용지3길 18-3 최후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로 244, 27동 107호 (금호동, 목련빌라)

위 김선근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07월 18일

공 고 인 : 김대용
한정승인 수리일 : 2024년 06월 03일
공 고 기 간 : 2024년 07월 18일부터 2024년 09월 17일까지

광양시 공고 제2024-1697호

분묘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러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4. 7. 18.
광 양 시 장

-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광양시 광영동 산67-89번지 (총1기)
- 개장 사유
: 광영동 상아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개장 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 개장 신고 후 이장
나. 무연분묘: 공고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화장 후 봉안)
- 무연분묘 안전 장소 및 기간

명 칭	소 재 지	연락처	안치기간	비고
광양시립 영세공원	전라남도 광양시 직동1길 300	061-762-4449	봉안 후 10년	시행령 제26조의2

- 공고 기간: 2024. 7. 18. ~ 2024. 8. 17. (30일간)
- 신고 및 연락처
가. 개 장 신고처: 광영동사무소 ☎ 061-797-4864
나. 연고자 신고처: 광양시 교통과 ☎ 061-797-2367
- 신고 시 구비서류 : 고인과 연고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족보, 분묘 개장신고서 등
- 기타사항
가. 상기 사업부지 내 봉분 망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에 같은 합니다.
나. 기 신고한 분묘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이장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연고자께서는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통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받아드립니다
	구상금

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개발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